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동화대학교
파견기간	18. 9. 10. ~ 19. 1. 11.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저는 동부화재의 유학생 보험과 상해 동화대학교 자체의 유학생 보험 두 가지를 모두 가입했습니다. 학교의 보험은 중국 국립 병원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개인병원을 가고자하면 한국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엔 이전에 산둥 연태대학교에서 거류증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류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총 800위안을 사용하였습니다.

항공권은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과 상해푸동공항 왕복 항공권으로 구매하였고 가격은 39만원 정도이며 장점은 위탁수화물 2개까지 무료로 허용된다는 점 입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이전에 중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지 정확히 알고있었습니다. 세제와 같은 소비품의 경우엔 중국의 대형마트에 각 국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피부가 민감하여 개인의 샤워용품이나 화장품이 필요하다면 적당량만 챙기시면 됩니다. 샤워필터기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구매하여 챙겨가지만, 중국에서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을 챙길 때 고가의 옷은 많이 챙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세탁기에 세탁할 경우 세탁망을 이용한다해도 옷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입거나, 수명이 다하여 버리고 올 옷들 위주로 챙기고, 필요한 의류는 현지에서 싸게 구입하여 버리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외에 영양제, 책 같은 것은 필요할 경우 챙기시면 됩니다. 간혹 스탠드, 멀티탭, 드라이기 등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고 부피가 크지 않은 개인 화장품과 팩 정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저는 중국 상해 동화대학교에 파견되었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각국의 수 많은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물가입니다. 상해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물가가 비싼 편 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발전되어 있고, 학교 식당의 식품들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비싼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한 학기 동안 산둥 지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중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공항에서 학교로 이동할 때 한국인 도우미들이 푸둥공항으로 직접 픽업을 나옵니다. 그 후에 기숙사 등록과 학교 등록 등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학교 등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반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표가 결정됩니다. 수업은 매일 오전에 중국어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두 과목으로 진행되며 오후 수업이 있는 날엔 중국 비즈니스, 문화, 필드스터디 수업이 나눠서 진행됩니다. 오후 3시30분에 모든 수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국어 수업은 매 달 월말고사를 치루고, 그 결과는 기말고사와 합쳐져 총점으로 변환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분반테스트에 임할 때 선생님께서 결정해주시는 반 보다 더 높은 반으로 가고자 한다면 한국 대학교의 성적을 어느정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기숙사는 1인실부터 4인실 까지 있습니다. 저는 2인실을 신청했지만, 남는 방이 없어 4인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중간에 방을 빼서 저를 포함해 한국인 2명과 몽골인 1명이 같이 생활했습니다. 방이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빨래를 할 때 세탁기가 학생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눈치싸움이 필요합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교내 활동은 수업외에도 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축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 댄스동아리, 교쟁동아리등 예술과 관련된 동아리들도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각 국의 친구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있습니다.

교외 활동의 경우 상해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각 종 박람회, 세미나, 전시회같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고자 한다면 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상해의 중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과 다르게 외국인에게 큰 신비함을 느끼지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자 한다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저 중국어 실력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사귀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중국인들은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짱깨, 짱꼴라 등으로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중국 생활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팁은, 음식입니다. 중국생활을 막 시작하면 중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경우 한국음식 또는 입에 맞는 음식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참고 먹다보면 습관이 되고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에 저는 충칭과 청두, 베이징을 여행했습니다. 모두 중국의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엔, 연휴 기간이라 사람들에 치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할만 하다고 느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음식의 맛도 많이 다르고 생활 양식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여행했던 곳 중에서 충칭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매운 음식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칭 지역은 기본적으로 음식 맛이 매운 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칭 지역에서 먹은 음식은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숙소 주인 부부께서 저와 같이 간 친구에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친자식처럼 챙겨주셔서 편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중국을 미디어로만 접한 친구들은 중국 생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더럽다, 미개하다 이런 내용을 미디어로 많이 접했을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중국 혹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를 끌여들이기 위한 미디어의 농단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중국 생활에 대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다시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에 비춰진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